안식

(히브리서 4:1-8)

안식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이고, 완성이다. 안식은 사탄의 대가리를 깨는 권세이고, 완성되었으니 너무 중요하다. 응답이 없으면 안 되듯이 안식이 없으면 안 된다. 승리와 정복이 완성된 것이 안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건드리겠는가? 오늘도 깊은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응답이 필요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행 9:15).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그 말씀 그대로 되어져서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 운동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세계를 살리는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신약의 대표는 사도바울이라면 구약은 모세일 것이다. 그는 살인을 한 후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냥 양치기로 숨어 살았다.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을 430년만에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응답과 기적으로 지도자로 살았다. 그의 인생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다.

성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의 공통점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말씀이 있는 자는 24시 기도로 들어갈 것이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24시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되면 내 기도가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과 전도도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되면 내 전도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즉시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영적 상태는 현장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현장이 살아난다.

첫 번째 현장은 '나'이다. 예비 된 응답을 만난다.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한 사람을 만난다. 이에 대한 예가 위의 두 사람뿐이겠는가? 성경에 많이 있고, 교회사에 많이 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언약을 잡으시라. 그러면 분명히 인생이 성경처럼 될 것이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성경과 꼭 같은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를 예사로 드리면 응답이 힘들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항상 재앙이 따랐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쟁, 가뭄, 재앙이 임했다. 이유는 약속의 피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항상 이 언약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언약의 피 제사가 사라진 것은 그 제사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예물과 제물도 사라졌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예물과 제물로 산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아갈 헌금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성소에서 할 업무들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나라에 재앙이 일어난다. 제사가 없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개인은 두말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민수기 18:5,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고 하셨다. 너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말한다. 레위인은 성소를 잘 가꾸는 임무를 받았다. 제사장들은 제단의 직무이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계속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피 제사가 그 백성 중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의 직무를 다하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레위인과 제사장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살고, 후대가 산다.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고 했다.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네 영혼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정복이 나타난다. 그 영이 임하면 이미 가기 전에 미리 정복이다. 그러면 네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으니 응답이다. 네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답은 이미 나왔다.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1.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완성된 것이고, 정복이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1절에 그의 안식, 3절 저 안식이라고 말씀하신다. 5절 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안식은 천국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안식이다. 그래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2절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유익하지 못함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음이라고 했다. 곧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영생으로 간다. 구원은 믿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은 필요없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막 5:34 '딸아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이다.

본문 3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이 창조 때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 안식이 이미 정해졌고, 안식을 받을 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집에가서 잘 읽어보시라. 오늘 처음 읽는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거의 안 되었을 것이다. 3절 중간 부분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하셨다. 거기서 그들은 히 3장에서부터 읽어보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안식이 천국의 영생의 안식을 말씀하는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5절에 또다시 이야기했다.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다고 하셨다. 같은 뜻인데 6절에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들이다. 집에 가서 진짜 한번 읽어보시라. 그냥 읽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모르고, 조금 지나면 무

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들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인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문자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명확하지 않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 확실한 부분이 있다. 이 안식이 어느 안식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지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하게 써놓았다. 그게 천국 영생 안식, 가나안땅에 들어가는 상징적 안식인지 상관없이 답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 답대로 하면 어느 안식이든지 들어가는 답이라는 것이다.

그 답이 믿음과 순종과 창세 전이다. 2절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이미 표현 되어있다. 6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나안땅에 들어간 사람은 순종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다. 3절 마지막 부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3절의 내용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창세 전에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창조 때 정해졌다는 것이다.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창조할 때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안식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믿음 외에는 안식의 길이 없으니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 잡을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라서 내 힘으로 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7절에는 나오는 말씀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바로 오늘이라고 미리 정하였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이다. 다윗의 글에 정하여 어느 날이라고 미리 말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순종하여 믿으라는 것이다.

8절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안식이라면 구태여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것이다. 그런데, 만일 오늘이라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완고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 되는 날이며,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른 히브리서 성경에도 언급한 곳이 없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우리가 이번에 집중훈련을 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장로님이 보내주었다. 거기에 보니 읽어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감사한 것도 많았다. 그중에 한 분이 본문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내게 들어온 생각은 '본문 해석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것인가' 였다. 이름을 쓰지 않았기에 누군지는 몰라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썼다. 제가 서론은 우리 중에는 영적인 어떤 상황이나, 수준, 즉 새 신자도 있고, 영적 상태가 다양하기에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다. 오늘 처음 온 분도 들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신앙생활이 50년 이상 된 분들도 필요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면 가능하면 본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전체에 대하여 흐름을 이야기한다. 월요일 성경 공부가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6장이다. 4장은 지나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내일 성경 공부에는 4장을 할 것이다.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식이 필요없다고 한적이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바른 누림으로 가지 못한다. 바른 누림이 될 수 없다. 혹시 의문 있는 분들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니 내일 참여해서 들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권세가 있다. 그 결과를 온 것이 안식이다. 평안이다. 이것은 정복의 결과이다. 그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라고 이 비밀을 주신 것이다. 안식은 평안이다. 사탄은 항상 불안하다. 아무리 굿을 하고, 빌어도 사탄을 따라가면 늘 불안하다. 그러니 더 귀신 섬기고, 불안한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 악순환의 상태에서의 해방이 그리스도이다. 말씀을 예사로 듣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한 분은 이 말씀 하나로 끝나고, 거기서 나온다. 대부분 그냥 듣고, 지나간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심정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아니겠는가? 귀를 기울어야지, 먼 산보면 되겠느냐? 약속의 피는 해방이고, 정복이다. 저주와 재앙을 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답은 분명하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잡았냐, 안 잡았냐? 내 환경 탓할 것 하나도 없다. 잡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무조건 해방이다. 이것이 안식이다. 복음의 완성이 안식이고, 영생의 완성이 안식이고, 복음의 최종작품이 안식이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른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 깜짝 놀랐겠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짐승들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 모든 짐승이 죽고, 모든 아이들이 죽는 것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첫 번째 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염소를 다 죽이는 게 더 쉬었을 것인데, 어느 것이 먼저 태어난 것을 아신 것이다. 그 염소가 몇키로 나가는지 알고 계신다. 털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한 것이다. 그의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애굽 전역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 언약을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유월절 그날 저녁이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도 유효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한 것 많다. 그러므로, 이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상관없이 이것을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지금 언약을 잡기를 바란다.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내 예배이다. 전체 예배는 다 드리는 것이다. 말씀이 전체적으로 주어졌다. 일단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성경처럼 된다. 이 은혜가 이 주간에 성취되기를 축복한다.